

앤서니 J. 토마시노(Anthony J. Tomasio) 박사, 십계명, 11차시, 계명 10 - 탐내지 말라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님의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1번째 세션, 10번째 계명 - 탐내지 말라.

이제 마지막 십계명에 도달했습니다.

내지 말라 .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계명은 저에게 약간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제가 교회와 교실에서 탐내 본 적이 있냐고 묻는다면, 방 안의 거의 모든 사람이 손을 들고 미소를 지을 테니까요.

있나요 ?" 라고 물었더라면 손 하나 들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매우 수줍어하겠지만요. 제가 "여기서 몇 명이나 살해당했나요?"라고 물었더니 손 하나도 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몇 명이나 탐했나요?"라고 물었더니 손이 다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탐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모든 십계명 가운데 이 계명은 독특합니다. 십계명 자체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법전 중에서도 유일무이합니다.

우르나무 법전, 라가시 법전, 중기 아시리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을 살펴봐도 탐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요. 하지만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첫 네 계명과 같은 계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법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와 이들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종류의 것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 여호와와의 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법전이나 규정 그 자체라기보다는 인류와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즉 언약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또한 법전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이것을 법이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탐욕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살펴보면 살인에 대한 율법, 절도에 대한 율법, 거짓 증언에 대한 율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계명을 어길 때 따르는 다양한 종류의 처벌에 대해 알려줍니다. 하지만 토라에는 탐욕에 대한 처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맞죠? 전에도, 아주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누군가 탐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누군가 "이웃집을 정말, 정말 갖고 싶어"라고 쓴 쪽지를 쓰지 않는 한 말이죠. 이 법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를 감시하고, 우리가 탐내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안식일처럼 이웃과의 관계, 그들의 행동, 물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주님께 맡기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이 계명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생각, 즉 나쁜 생각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할까요? 네, 탐욕은 또 다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 계명이 위계와 목록의 순서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해 교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이것이 정말 열 번째 계명인가요, 아니면 아홉 번째와 열 번째 계명인가요? 유대교, 정교회, 그리고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이것이 열 번째 계명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네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런데 가톨릭과 루터교가 있는데, 이들은 좀 특이한 사람들, 이 경우에는 이상한 새들입니다. 처음 두 계명은 가톨릭과 루터교의 질서에서 통합되었기 때문에, 다른 신이나 형상을 결합해서 첫 번째 계명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도출 하기 위해서는 , 출애굽기 34장과 31장, 그리고 신명기 모두 십계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열 가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관한 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9번째 계명은 ,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

그러면 10번째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등등등등등등. 이걸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그냥 마구잡이로 잘라내는 걸까요? 아니요 , 사실 신명기 5장은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탐내는 계명의 요소들을 재정렬하고 아내를 먼저 두고 어떤 의미에서는 남편의 소유물에서 분리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의 칠십인역은 이상한 이유로 신명기의 순서를 따르는데, 아마도 신명기를 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지막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리고 네 이웃에게 속한 다른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그래서 가톨릭과 루터교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다른 문헌들을 따라 이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신명기에서 아내가 앞부분으로 옮겨간 것은 신명기가 주어진 새로운 맥락, 즉 아내를 소, 노새, 집 등과 같은 것들과 단순히 묶어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분리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신명기가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아내는 단순히 또 다른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죠? 풀어보는 영상 말이죠. 그러면 조회수가 수천, 수만 건이 됩니다. '코벳 하마드' 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욕망한다' 는 뜻이지만, 단순히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많은 경우, 그리고 이 부분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많은 경우에서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의도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가 2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밭을 탐 하여 빼앗고 집을 탐하여 빼앗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여기서 탐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사람들이 탐할 때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시편 68편 16절, 너 산꼭대기여,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시려고 탐하신 산을 미워하느냐? 참으로,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곳으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산을 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산을 취하셨습니다. 이사야 1:29, 이는 네가 탐내던 상수리나무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네가 택한 동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임이니라.

사람들은 참나무를 예배 장소로 탐했고, 결국 자기들의 예배 장소로 삼았습니다. 욥기 20장 20절에 따르면, 그는 자기 배에 만족할 줄 몰랐기에, 탐하는 것은 무엇이든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누군가가 무언가를 탐하면,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단순히 "이웃이 새 차를 샀네. 나도 새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이 새 차를 샀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의 새 차를 원하고, 어떻게든 구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살펴보는 동안, 여기 이 목록을 생각해 보세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 이어서 탐내서는 안 될 모든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 이 특별한 경우에 이런 것들을 나열했을까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목록은 물론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그 외의 모든 것. 분명히 그 외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아내,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그 외의 모든 것이 맞나요? 기본적으로 같은 목록인데 순서를 바꾸고 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두 목록 모두 비슷한 수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요점은 이웃의 모든 집과 재산이 당신에게 금지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고대 근동 문학에서 요점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는데, 뭔가를 정말 강조하고 싶다면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점을 좀 더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히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했다면 같은 의미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이웃집에 있을 법한 모든 것들을 덧붙였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집'이 반드시 물리적인 구조물, 즉 건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집'이라는 단어는 이런 경우를 꽤 자주 볼 수 있는데, '집'은 왕이라면 왕조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두 목록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웃의 소유물 중 하나이거나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집'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집이 사람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 즉 모든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여러 부분을 나열한 후, 이웃에게 속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그 외의 모든 것을 언급하며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집'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여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지칭하는 일종의 포괄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집안에 속한 것들, 즉 아내, 동물, 하인 등등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데, 덧붙여 말하자면, 그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소유물과는 별개로 아내 등이 먼저 언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에 필드를 추가했을까요 ? 음, 1, 2, 3, 4, 5, 6, 그다음에 1, 2, 3, 4, 5, 6, 7 ... 5, 7, 그다음에 1, 2, 3, 5, 6, 7, 그다음에 1, 2, 3, 5, 7, 그다음에 1, 2, 3, 5, 6, 7, 그다음에 1, 2, 3, 5, 7, 그다음에 1, 2, 3, 5, 6, 7, 그다음에 1, 2, 3, 5, 7, 그다음에 1, 2, 3,

이웃의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도로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마가복음 7장 21~22절에서, 안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악한 생각,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음탕, 시기,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15, 또 이르시되 모든 탐심을 조심 하고 경계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베소서 5:5, 이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탐하는 자니, 여기서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자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너무나 강렬하게 원하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그에게 신과 같아지고 그의 행동을 지시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런 기업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 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므로 살인하고 탐내어도 얻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의 것을 원하는 사람이 모두 그 사람을 죽이고 빼앗으려 하는 것은 아니고, 독자 여러분 중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여러분의 회중을 더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것을 원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음, 어느 정도는 이 내용이 십계명의 마지막에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당신은 스스로에게 큰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탐욕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하겠지만, 누가 진정으로 탐욕에 관심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탐욕의 심각성은 탐심이 흔히 우리가 죄의 관문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절실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타락 중 일부는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좋은 친구 야고보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탐심이 자기를 끌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 자, 대부분의 번역본에는 여기서 탐심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 단어는 에피투미오스 입니다 . 참고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탐하는 것, 즉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 대해 사용하신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는 소유하려는 의도를 암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에 끌려 유혹을 받아 시험을 받습니다. 탐욕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습니다.

참 멋지고 아이러니한 병치 아닌가요? 죽음을 낳는다는 게 참 마음에 들어요. 탐욕의 씨앗을 그대로 두면 쓰디쓴 수확으로 자랄 수 있거든요.

그것은 파멸과 죽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밋세바 이야기만큼 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 이 이야기는 예수님 탄생 약 천 년 전에 일어납니다.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국을 굳건히 하고 번영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쉬면서 여유를 즐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군대가 전쟁을 치르는 동안, 다윗은 궁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궁궐 창밖을 내다보니 길 건너편에 집이 하나 보이는데, 그 집 지붕 위에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다윗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리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있잖아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왜 추측해야 하죠? 우리가 아는 건 다윗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죠. 최전선에서 군대를 이끌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집에서 몰래 엿보며 길 건너편 여자를 몰래 엿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인 중 한 명을 불러서, " 저기 길 건너편에 사는 젊은 아가씨는 누구야 ? "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들이 가서 알아보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 아 , 저 젊은 여인은 밋세바입니다. 왕의 신하 중 한 명인 헛 사람 우리아의 딸입니다. "

다윗은 생각했다. “아, 헛 사람 우리아인가? 지금 내 전쟁을 지휘하고, 내 대신 싸워주고 있잖아.” “이제 우리아는 집에 혼자 남았구나, 불쌍한 우리아.” 그리고 다윗은 탐하기 시작했다.

그는 밋세바를 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밋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왕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끔찍한 질병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밋세바를 탐하여 간통을 범했습니다.

밋세바가 곧 다윗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전갈을 보냅니다. 그러자 다윗은 “와, 이 일을 은폐하기 위해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아가 다윗의 부탁대로 보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입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하룻밤을 보낼 것이고, 아내가 임신했다고 발표하면 모두가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계산을 잘 못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우리아는 궁궐에 와서 보고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궁궐 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은 그를 술에 취하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여전히 아내에게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왕의 부하들이 전장에서 싸우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아, 다윗은 부하들이 전장에서 죽어가는 동안 우리아의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에, 마치 자기 부하들이 전장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지휘관 중 한 명에게 전갈을 보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자신과 우리아 외에는 아무도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군 중 한 명을 보내 “이 전갈을 전하는 사람을 전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배치하고, 그 후에 버리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장군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아는 전투에서 전사했고, 다윗은 밋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간통과 살인을 저질렀지만, 물론 그 모든 것은 탐욕이라는 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야기의 행복한 결말은, 다윗이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다윗에게 이웃의 어린 암양 새끼를 탐내어 자기 것으로 삼은 한 남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의로운 분노가 타올라 “이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이시여.”라고 말합니다.

네, 그 이후로 다윗의 집안은 온통 문제투성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그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고, 봐서는 안 될 사람을 바라보고, 그녀를 탐하는 데서 시작됐죠. 꽤 극단적인 이야기죠. 남자의 탐욕이 결국 왕족의 몰락으로 이어졌으니까요.

탐욕이 우리 대부분에게 꼭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임스가 뭐라고 말 하든, 탐욕이 우리를 전형적인 살인자로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 탐욕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큰 빚쟁이로 만들 수는 있지만, 대개 살인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풍요의 땅,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현대 미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이웃이 직장에 와서 온갖 기능이 탑재된 멋진 새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의 휴대폰을 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차 하나 사서 앞으로 10년 동안 매달 갚으면 되는 거잖아? 그 사람이 멋진 새 차를 사면 나도 하나 사서 어떻게든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 알아볼 거야. 이웃집 배우자에게 끌린다면, 잠깐 기다려 봐. 그러면 이혼할지도 몰라. 굳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는 없잖아.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살인을 저지를 필요는 없잖아 .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 가진 걸 원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걸까? 흠.

탐욕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가 탐욕에 따라 부당하거나 정말 죄악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특히 미국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로움 덕분에 우리는 욕망의 좌절을 거의 겪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어떻게든 얻을 수 있습니다.

교활한 광고주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롭고 더 좋고 빠르고 더 반짝이는 기기들을 내세워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기들에 속아 넘어갑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영상을 봤습니다. 1950년대에 만들어진 영상인데, 본질적으로 소비주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주의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공익 광고는 본질적으로 소비주의가 좋은 것이고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나가서 사고 사고 사는 것이 좋은 일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음, 1950 년대, 전후 시대였잖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글쎄요,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 2011년 9·11 테러 이후, 세계무역센터와 쌍둥이 빌딩, 그리고 그 외 여러 테러가 일어났지만 특히 쌍둥이 빌딩 테러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미국인이 나가서 물건을 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냉소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여기서 하려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 탐욕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당신이 탐욕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이 더 많은 것을 갖기를, 더 많은 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물론 월가도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원하기를 원하고, 광고주들도 당신이 광고에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간통과 살인의 나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탐식의 나라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여기서 미국을 좀 깎아내릴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사실 탐욕과 탐욕의 전형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4.2%를 차지하지만, 전 세계 상품의 30% 이상을 소비합니다. 미국의 소비는 소셜 미디어뿐만 아니라 소비자 불만을 조장하는 교묘한 광고에 의해 주도됩니다.

민어요, 그들은 어떻게 놀러야 할지 잘 알고 있어요. 꼼꼼한 조사도 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내게 만들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정부, 광고주, 생산자 모두 우리가 심계명을 어기도록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궁금할 겁니다. 사탄이 조종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어쨌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떠올리며 특권층이라고 부르지만,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누구도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부유한 십 대들은 오늘날 다른 어떤 사회경제적 젊은 세대보다 우울증, 불안, 그리고 약물 남용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누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바로 부유한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불안감을 유발할까요? 왜 그렇게 많은 우울증을 유발할까요? 그들은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지 못하고,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 저는 공영 방송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예방센터(CDC)는 선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 말하자면 이 질병의 광범위한 발병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병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교외 지역 중 하나인 조지아주 애틀랜타 교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기자들은 호화로운 저택들을 돌아다니며 부모들과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원하는 건 거의 다 가졌지만, 부모님은 거의 모르셨습니다. 12살, 13살짜리 아이들은 며칠씩 집에 혼자 남겨졌고, 부모님은 출장이나 휴가, 혹은 크루즈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심심해서 온갖 장난을 치는 아이들뿐이었습니다.

부유한 14세 아이들이 임신하고, 마약에 중독되고, 이웃과 경쟁하고, 최신, 가장 크고, 최고의 제품을 갖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 자식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들은 번영이라는 제단에 자식을 희생했습니다. 탐욕이 미치는 개인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신경 쓰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고요.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웃집 차를 소유하는 꿈을 꾸거나, 이웃집 배우자를 탐하거나, 심지어 휴대폰을 갈망한다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러움입니다. 부러움은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부러움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작은 부러움이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도록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잘하고 싶어집니다. 좋은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생산적으로 만들도록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항상 나쁜 건 아니지만, 반대로 우리를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분명 나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시기심은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상에,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지? 나도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와, 나도 그들만큼 열심히 일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그들이 승진하는 거지? 왜 월급 이 오르는 거지?" "내가 하지 않는 일을 해주고 있는 거겠지."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차를 살 수 있지?"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메리의 남편은 방금 메리를 크루즈에 데려갔지만, 제 남편은 저를 크루즈에 데려간 적이 없습니다.

난 패배자와 결혼했어. 원망은 관계를 망칠 수 있어. 그리고 원망은 더 커져서 증오로 이어질 수도 있어.

물론 우리 대부분은 성경이 증오를 강력하게 비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역사에서 이러한 과정의 가장 극적인 사례는 부와 명예에 대한 꿈이 끊임없이 빗나가는 좌절감에 빠진 젊은 예술가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가 만났던 성공한 예술가들과 사업가들, 대부분 유대인들에 대한 부러움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와 시기심은 격렬한 반유대주의로 커졌습니다. 물론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탐욕이 우리를 도둑질이나 살인, 혹은 폭군이 되도록 이끌지는 않더라도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해롭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해로울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한 불만을 낳습니다. 우리는 전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휴대폰을 쓰는데, 이웃집 휴대폰을 보니까 더 좋은 휴대폰이 있더라고요.

왜 더 좋은 휴대폰을 가질 수 없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만을 느낄 때,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원할 때, 어쩌면 위대한

베푸신 분께 원망을 품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정말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부유한 경우 가 많은데 , 이걸 옳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멋진 것들을 경멸하게 될 수도 있어요. 탐욕은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신경 써야 할까요? 아, 물론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부르십니다.

아시다시피, 감사함은 탐욕의 정반대 개념이에요. 탐욕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죠. 감사함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욕의 태도 대신 이러한 태도를 기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들,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 특히 우리 이웃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웃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로워졌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사용하신 방식, 신약성경이 십계명과 그 이면에 있는 원리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이 계명들의 이면에 있는 원리들은 좋은 생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유용한 사람이 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삶을 즐기고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의무는 없지만,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유익과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짐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함축하는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반이나 공립학교 벽에 붙여놓고 아이들을 충알로부터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것들을 놓아야 할 목적입니다.

이것은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님의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1번째 세션, 10번째 계명 - 탐내지 말라입니다.